

종합

3D융합산업·레이저·광산업 2016년까지 1조5405억 투입 광주 차세대 산업 프로젝트 시동

지경부 예비타당성 결과 내년 발표... "지역 산업 미래 좌우"

광주시가 3D융합산업과 레이저, 광산업 등 3개 분야에 모두 1조5405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이달 말과 내년 상반기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6년까지 각 사업별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2일 "각 시·도와 연계한 사업인 3D융합산업과 레이저 융합 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외에 광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광산업 분야 등 지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결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된다"고 밝혔다.

영상산업 이외의 타 산업에 3D 영상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3D융합 산업인 창출·육성,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3D융합 산업에는 국비 436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광주 시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기반구축사업(연계클러스터 및 생산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사업(해외마케팅지원, 인력양성사업, 기술사업화지원), 기술개발사업(기반기술개발, 제품기술개발) 등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높이 평가돼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레이저 융합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내년 상반기 제출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5037억원 등 모두 69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광주·부산·대구·경북·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5년 간 기반구축사업(기술지원센터, R&D센터), 기업지원사업(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애로기술지원), 기술개발사업(원천기술개발, 제품화 기술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광산업 분야 프로젝트 역시 내년 초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광산업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관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1단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1880억원 등 25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추진 주체는 지식경제부와 광주시, 한국과학기술원 등 관련 연구기관으로 핵심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사업 내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첨단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R&D특구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운대 광주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가진 뒤 18개 제조업체와 5개 차고클러스터 등 23개 업체와 200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 수도권 23개 기업 2001억 투자유치

市, 서울시 광통신·반도체 등 관련 업체와 MOU

광주시가 수도권 소재 23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20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광주시는 2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120여명의 수도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광통신 및 LED(발광 다이오드)분야를 비롯 반도체·가전·로봇분야, 금융·제조 분야, 차고산업 분야의 기업 23곳 업체와 2001억원 규모의 투자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광통신·LED분야의 라이트웍스, 더스테

크,태평양기술, 노바스이지, 셀코스, 소모홀딩스 ▲반도체·가전·로봇분야의 코윈디에스터, 코맥스, 이유아 이텍, 정호산업, 에스알시 ▲풍력산업 분야의 에니텍시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또 ▲전기자동차분야에서는 삼양옵틱스, 선진통신 ▲금융·제조분야에서는 세양시스템, 파바나인, 한일관공속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스피드메드, HT, 알파메드, 글로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차고산업클러스터 관련기업 5개 업체도 광주시와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유치로 10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도권 투자유치를 위해 직능별·분야별 전문가 16명을 수도권 투자유치전문위원으로 새롭게 확대 위촉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정밀금형센터 준공과 기아자동차 50만대 생산, 대우일렉트릭 등 광주시역 주요 대기업들의 생산설비 증설과 같은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투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을 잘 살려 기업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마을마다 '고속도 나들목' 낭비 크다

동순천·고흥 등 지자체 요청만 하면 추가 설치... 별다른 기준 없어

감사원 지적

정부와 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 과정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2일 감사원이 지난 4~5월 실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자체 요구로 추가 설치 중인 전주~광양 간 고속국도 동순천 나들목 등 4개 나들목 가운데 3곳은 사업비 대부분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했다.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

목의 경우는 정부와 도로공사의 부담액이 사업비의 93.4%에 달했다.

또 동순천 나들목은 당초 기존 국도에 나들목을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순천시가 자체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요구하자 고속국도와는 관련이 없는에도 나들목 형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

다. 감사원은 "현재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나들목 추가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나들목을 추가 설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속국도 사업시행 단계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 조건, 범위, 비용 부담 등의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공공기관 284곳 1만명 채용 계획

내년에 284개 공공기관이 모두 1만 명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23일 서울 무역컨벤션센터에서 '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도로공사, 코트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2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이 기관들은 내년 중으로 50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는 약 1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기관별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에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일대일 상담과 주요 기관 채용설명회, 모의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책홍보관을 통해 공공기관 인력정책을 참가자에게 알리고 특강이나 취업컨설팅 등 부대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기업별로 이뤄진 채용 박람회는 많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공공기관만 모여 구직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람회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광우병 보도' PD수첩 2심도 무죄... "일부내용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승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부 내용이 허위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

렵고 편집 방식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목적이 과장이 있었다고 하위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러 "공직자의 업무가 국민의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판이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최고기 수임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공적인 사안 이므로 사적 영역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국민 실전 가상 대피훈련

소방청, 오는 15일 실시

소방방재청은 15일 오후 국민이 실전상황을 가상해 비상대피시설로 피하는 특별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훈련은 연평도 사태와 같은 적의 포격으로부터 대피하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합뉴스

훈련은 15일 오후 2시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정보통제소의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시작돼 20분간 실시된다.

서해5도와 접경지역에서는 면 단위 지역에서도 적의 포격에 대비한 주민대피 훈련을 한다. 이때 전 국민은 직장과 학교, 마을 단위로 민방위대의 인솔을 받아 지하실 등 대피시설로 피해야 한다. /연합뉴스

산림분야 '최우수' 선정

광주시 포상금 2천만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일 '2010년도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 광주시와 충남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 200여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펴고 있는 숲가꾸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지관리, 도시숲 조성 등 산림분야 주요 시책을 점검, 평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우수 기관에 포상금 2000만원을 수여하는 등 이번 평가에서 26개 기관, 공무원 16명에게 모두 3억38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성업중

무주공영 ↑ 원위치 ↓ 일곡지구

31사단 세리APT 푸미APT 모이호APT 호반APT 북부서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개)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의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연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점질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입찰사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협협동조합
안강농협협동조합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최신형 KDVD-2300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을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지막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듀엣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 수도 시중 DVD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됐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맞는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 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 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입문의 02-522-4355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쥘리엥 시계가 야심 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나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가 자갈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 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멋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을겨울부모님 건강선물

따뜻따뜻한~~ 천연항토 쿠들

100% 천연항토

규격 1,200×2,000 제질 편백나무와 황토석

특별가 ₩1,850,000 → ₩150만원

황토석이란? 천연의 황토가 수만년동안 퇴적과 압력작용을 거듭하면서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흙돌을 말한다.

황토주택 / 황토방 / 편백 인테리어 시공

황토석 판매및시공 전·남북 총판 T.010.9887.4578